

### 소품용 권총서 실탄 발사 40대 촬영감독 사망 충격

‘할리우드 스타’ 볼드윈, 촬영 중 사용하다 사고 수일전에도 실탄 발사...현장 안전관리 거센 논란

할리우드 스타 알렉 볼드윈(63)이 영화 촬영 도중 쓴 소품용 권총에서 실탄이 발사돼 촬영감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실탄이 아닌 공포탄을 장전한 소품용 총'을 뜻하는 '콜드 건'을 썼지만 사고 닷새 전에도 실탄이 발사된 것으로 드러나 현장 안전관리를 둘러싼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헬리나 허친스 감독

24일(이하 한국시간) CNN과 A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21일 알렉 볼드윈이 미국 뉴멕시코주 산타페의 한 목장에서 영화 '러스트'를 촬영하던 도중 사용한 소품용 총에서 실탄이 발사돼 맞은편에 있던 헬리나 허친스(42) 촬영감독이 이에 맞아 숨졌다. 조엘 소자 감독 등 일부 스태프도 부상을 입었다.

현지 경찰은 사고 직후 현장을 폐쇄했고, 제작진은 촬영을 중단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쓰인 총과 탄약, 볼드윈의 의상과 일부 촬영장비 등을 압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소품 담당 조감독은 사고 당일 볼드윈에게 "콜드 건"이라며 소품용 총을 건넸고, 실탄이 장전되어 있었던 건 몰랐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우발적 사고에 무게를 두고 볼드윈과 조감독에게 형사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알렉 볼드윈은 SNS에서 "이번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밝히기 위해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면서 "허친스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에 충격과 슬픔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 닷새 전에도 현장 소품용 총에서 두 발의 실탄이 발사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을 더하고 있다. 당시 한 스태프는 이에 대해 제작진에 항의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영화 촬영현장의 안전관리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미국 연극배우노조는 "총기 촬영의 경우 사전 시험발사를 통해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안전지침을 두고 있다.

할리우드 제작현장에서 총기 사고가 벌어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1993년 브루스 리(이소룡)의 아들 브랜던 리가 영화 '크로우' 촬영 도중 상대배우의 총에 맞아 숨졌다. 또 2014년 '캡스'라는 TV프로그램 제작현장에서 스태프가 소품용 총을 맞았다. 이번 사고로 숨진 헬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의 유족은 "현장 스태프의 안전을 더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9@donga.com

**동행복날**

구매금액은 10만원 이하  
구매연령은 만 19세 이상

만 19세부터 구입할 수 있고 당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당 1회 1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Lotto 6/45 986회 당첨번호** (추첨일: 2021년 10월 23일)

1등 당첨번호	7	10	16	28	41	42	2등 보너스 번호	40
---------	---	----	----	----	----	----	-----------	----

1등 총 당첨금: 2,375,275,125원

등위 및 당첨개입 수	당첨금(원)	당첨금 내역
1등 6개 숫자 일치	10	2,375,275,125원
2등 5개 숫자 일치	70	56,554,170원
3등 4개 숫자 일치	2,793	1,417,398원
4등 3개 숫자 일치	133,889	50,000원
5등 2개 숫자 일치	2,231,167	5,000원

\*1등 총 당첨금은 1등에 당첨된 총 당첨개입 기준이다. 당첨 개입수가 복수인 경우 균등 배분된다. 총 당첨금은 총 판매액의 50% 이상이다.

\*당첨금 1000원 이상은 1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세금 공제 후)

• 동행복날 콜센터: 지역없이 158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www.dhlottery.co.kr  
당첨금 지급기간: 해당 회차 지급세일로부터 1년까지

복원 구입시 유의 사항  
• 복권은 1년 및 10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정수론 복권은 구매자에게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자진복권 구매는 중독의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번호 080-950-9500 www.dhlottery.co.kr

## 이적 후 6경기 4골...EPL '황소 돌풍'

10월 A매치 아쉬움 날려버린 한방 올버햄턴 감독 "정말 잘하고 있다" 현지언론 "완전영입 최적 타이밍" 효했다.

Premier League '황소' 황희찬 (25·올버햄턴)이 다시 한번 힘차게 포효했다.

황희찬은 24일(한국시간) 엘런드 로드에서 끝난 리즈 유나이티드와 2021~202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9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시즌 4호 골을 터트리며 팀의 1-1 무승부를 이끌었다. 절정의 퍼포먼스를 발휘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전반 10분 오른 측면에서 낮게 날아든 패스를 받은 라울 히메네스가 시도한 슈팅이 리즈 수비수를 맞고 굴절되자 지체 없이 달려든 황희찬은 리바운드 볼을 골문으로 침착하게 차 넣었다.

올버햄턴은 후반 추가시간 동점골을 헌납해 다 잡은 승리를 놓쳤으나, 황희찬만큼은 충분히 빛을 발했다. 라이프치히(독일)에서 활약하다 8월말 올버햄턴으로 1년간 임대 이적한 그는 6경기에서 무려 4골이라는 발군의 골 결정력을 과시 중이다. 이 기간 올버햄턴도 4승1무1패의 눈부신 성과를 냈다.

황희찬은 지난달 12일 왓포드와 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데뷔골을 신고했고, 이달 2일 뉴캐슬과 7라운드 홈경기에서 멀티골을 뽑았다. 이어 이달 리즈 원정에서 또 골맛을 보며 새로운 길러의 등장을 확실하게 입증했다. EPL 사무국이 선정하는 '킹 오브 더 매치(KO TM)'로 뽑힌 것은 지극히 당연했다. 최근 분위기는 썩 좋지 않았다. 세



올버햄턴 황희찬(오른쪽)이 23일(한국시간) 리즈 유나이티드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원정경기 전반 10분 선제골을 뽑아 팀의 1-1 무승부에 기여했다. 시즌 4호 골이다. 득점 후 동료들의 축하에 미소 짓는 황희찬. 사진출처 | 올버햄턴 원더러스 트위터

계 최고의 무대로 꼽히는 EPL에 빠르게 정착하며 기대를 모았으나, 국가대표팀에 합류해 시리아(홈)~이란(원정)으로 이어진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A조) 3·4차전에 모두 출전했으나 침묵했다. 특히 수차례 결정적 찬스가 주어졌음에도 너무 힘이 들어간 나머지 허무하게 날리는 장면을 반복해 아쉬움을 낳았다.

소속팀으로 복귀한 직후인 16일 애스턴빌라와 8라운드 경기에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한 치명적 패스 미스를 범하기도 했다. 다행히 부진이 되풀이되지 않았다. 리즈 원정은 그간의 답답함을 한순간에 날린 계기가 됐다.

올버햄턴 브루노 라즈 감독은 리즈 원정을 마친 뒤 클럽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아주 오래 전부터 황희찬을 예의주시했다. 마침내 영입을 확정하고 정말 기뻐다. 그의 높은 축구 수준을 잘 알고 있었다. 황희찬은 정말 잘하고 있다"며 흐뭇함을 감추지 않았다.

현지 매체들의 반응도 뜨겁다. KOTM 선정과는 별개로 축구통계전문 후스코어드닷컴은 황희찬에게 올버햄턴에서 가장 높은 평점 7.4를 부여했고, 영국 공영방송 BBC는 "올버햄턴 임대 후 4골을 몰아친 황희찬의 영향력은 대단했다. 득점력이 부족한 올버햄턴에 큰 힘을 불어넣었다. (완전 영입) 옵션을 발동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라며 올버햄턴의 빠르고 과감한 결단을 칭찬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 황선우 경영월드컵 자유형 200m 우승...국제대회 첫 금

박태환 2위 기록에 0.14초 뒤져 "쇼트코스 기록 더 줄여가겠다"

'한국수영의 미래' 황선우(18·서울체고)가 국제수영연맹(FINA) 경영월드컵 남자 자유형 200m에서 자신의 국제대회 첫 금메달을 수확했다.

황선우는 23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하마드아쿠아티움에서 열린 2021 경영월드컵 3차 대회 마지막 날 남자 자유형 200m 결선에서 1부41초17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톱코스(50m)와 쇼트코스(25m)를 통틀어 그의 첫 국제대회 금메달이다. 이번 대회는 쇼트코스에서 펼쳐졌다.

150m 지점까지 2위였던 황선우는 마지막 50m 구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매튜 셰이즈(1분41초33)를 앞질렀다. 3위는 1분42초26의 다나사 램시스(리투아니아). 황선우는 경기 후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를 통해 "주 종목에서 금메달이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 기쁘다"며 "앞으로 쇼트코스 기록도 더 줄여가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황선우의 이날 기록은 박태환(32)이 2016년 캐나다 원정에서 벌어진 제13회 FINA 쇼트코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며 작성한 아시아기록(1분41초03)에 불과 0.14초 뒤진 것이다. 주 종목이 자유형 100m와 200m인 황선우는 앞서 개인혼영 100m와 자유형 100m에서 잇달아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이번 대회 3개 종목에 출전해 모두 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한국은 이번 대회를 금 2개, 은 3개, 동 9개로 마감했다. 24일 귀국한 수영대표팀은 12월 중순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되는 제15회 FINA 쇼트코스 세계선수권대회 준비에 돌입한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 고진영 "LPGA 한국인 200승의 마지막 4개까지 내가 장식해 기뻐"

(197승~200승)

▶'LPGA '한국선수 200승' 역사의 주인공은 고·진·영!'1면에서 이어집니다

하지만 1라운드부터 노보기 플레이를 펼친 임희정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14번(파4) 홀에서 1타를 줄여 공동 선두에 복귀한 뒤 15번(파5) 홀에서 다시 버디를 잡아 고진영을 따돌리고 단독 선두를 되찾았다. 임희정으로 분위기가 다시 기운 듯 했지만 고진영은 17번(파4) 홀에서 버디를 잡고 승부를 연장자로 이어갔다.

18번(파4) 홀에서 펼쳐진 돌만의 플레이오프, 고진영은 하이브리드로 친 세컨 샷을 홀컵 약 50cm 거리에 붙여 버디를 낚으며 파를 기록한 임희정을 따돌리고 마침내 정상에 올랐다.

2주 전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에 이어

이름	스코어	라운드별 타수
우승 고진영	22언더파 266타	71-64-67-64
2위 임희정		67-66-65-68
공동3위 리디아 고(뉴질랜드)	17언더파 271타	73-67-67-64
김아람		66-71-70-64
이다연		68-73-65-65
안나린		64-69-69-69

\* 18번(파4) 홀 연장=고진영 버디, 임희정 파  
\* 잔잔지 16언더파 공동 7위, 장하나 12언더파 공동 14위.  
\* 박인비 6언더파 공동 36위, 김세영 3언더파 공동 52위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고진영은 7월 이후 7개 대회에서 4승을 행기는 무서운 페이스로 6월 말 벨리 코다(미국)에게 내줬던 세계랭킹 1위 자리를 탈환했다. 개인통산 3번째로 올라서는 세계랭킹 1위. 아울러 시즌 4승으로 코다(3승)를 제치고 이번 시즌 최다승자가 되며 CME 글로벌 포인트 랭킹에서도 선두로 나섰다.

뜻깊은 기록은 또 있다. 한국인 LPGA 투어 통산 200승 주인공의 영광을 안았다. 197승부터 200승까지 모두 자신의 이름이 아로새겨진 대기록이다. 1988년 고구유희가 스탠더드 레지스터에서 첫 승을 거둔 이후 고진영의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까지 태극 남자들은 33년 동안 48명이 200승을 합작했다.

1950년 출범한 LPGA 투어에서 통산 최다 우승을 차지한 미국(1527승)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두 번째로 200승 고지에 오르며 3위인 스웨덴(118승)과의 격차도 82승으로 벌었다.

"4타 차였을 희정이가 워낙 기본기가 탄탄한 선수라 (4라운드에서) 열심히 하면 준우승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운이 좋으면 내가 프로에 와서 한 번

도 하지 못했던 연장에 갈 수 있겠다는 기대를 안고 4라운드를 시작했다"고 털어놓은 고진영은 "세계랭킹 1위에 복귀한다면 이번 대회를 통해 하고 싶었다. 한국인 통산 200승의 마지막 4개까지 내가 장식해 기뻐"고 밝혔다. "미국 진출 직행 티켓을 노렸던 희정이에겐 미안한 마음도 든다"고 후배에 대해 솔직한 마음도 내비친 그는 "일주일 정도 국내에서 휴식을 취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2개 대회를 더 뛰고 시즌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규라운드 72홀 동안 단 하나의 보기도 범하지 않으며 LPGA 통산 7번째 '노보기 우승'을 눈앞에 뒀던 임희정은 마지막 순간 '큰 산' 고진영을 넘지 못하고 미국 진출 기회도 얻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